

http://dx.doi.org/10.17703/JCCT.2024.10.3.1

JCCT 2024-5-1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원인 분석과 전략적 함의

Analysis of the Causes of the Israel-Hamas War and Strategic Implications

배일수*, 정희태**

Il Soo Bae*, Hee Tae Jeong**

요약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기습공격으로 전쟁이 발발하였다.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2021년에 비슷한 원인과 양상으로 충돌이 있었고 곧바로 평화협정을 맺고 일단락되었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전쟁은 인류사의 상당 비중을 차지한다. 케네스 월츠에 의하면, 인간 간의 폭력적이고 이기적인 본성과 국가의 자국 이익 추구의 속성, 그리고 국제체제가 전쟁의 원인으로 동시에 작용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원인을 케네스 월츠의 3가지 이미지 이론으로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한국의 군사전략에 미치는 함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주요어 : 전쟁의 원인, 인간, 국가, 국제체제, 군사전략

Abstract With the Russia-Ukraine war ongoing, the war broke out due to a surprise attack by Hamas on October 7, 2023. Israel and Hamas had a conflict with similar causes and aspects in 2021, which was immediately resolved with a peace agreement.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human history is the history of war.' War accounts for a significant portion of human history. According to Kenneth Waltz, the violent and selfish nature of humans, the nature of nations pursuing their own interests, and the international system act simultaneously as causes of wa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auses of the Israel-Hamas war using Kenneth Waltz's three image theories to derive implications and provide implications for Korea's military strategy.

Key words : Cause of War, Man, The State, International System, Military Strategy

I. 서론

유대교 안식일인 2023년 10월 7일 새벽(현지시간) 오전 6시 30분부터 무장정파 하마스가 통치하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5,000발 이상의 드럼통으로 만든 수제 로켓과 가삼 로켓이 반반 비율로 약 3시간 30분 동안 가자지구 인근 이스라엘 정착 도시와 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까지 무차별로 공격을 감행하였다. 이날 새벽 포

성과 공습, 사이렌이 뒤섞인 도시는 순식간에 우수라장으로 변했다. 당시 로켓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한쪽에 집중되어 있던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아이언 돔 대공 방어망은 모든 로켓을 방어하기엔 역부족으로 사실상 무력화되었다. 하마스 특작부대원 일부는 동력형 패러글라이더를 동원해 장벽을 넘어 침투했으며, 동시에 불도저 등을 이용해 최소 7곳에서 가자 지구 경계에 설치된 분리 스마트 장벽을 무너트리고 특히 남쪽 국경 방어선에 침투한 하마스 무장대원들이 이스라엘 군인들을 사

*정희태, 육군대학 전략학과 교수 (제1저자)

**정희태, 서경대학교 군사학과 교수 (교신저자)

접수일: 2024년 2월 25일, 수정완료일: 2024년 4월 3일

게재확정일: 2024년 4월 25일

Received: February 25, 2024 / Revised: April 3, 2024

Accepted: April 25, 2024

**Corresponding Author: ilsoo45@naver.com

Dept. of Strategy, ROK Army College, Korea

살하면서 침투해 국경 방어선을 무너뜨리고 대규모 병력이 이스라엘 내부로 침공하였다. 이에 이스라엘은 이에 대응해 전쟁을 선포하고 ‘철검(Iron Swords)’ 작전을 즉각 시행하였다[1].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전쟁은 인류사의 상당 비중을 차지한다. 미국의 역사학자 월 듀란트의 연구에 의하면 3,500년의 인류 역사 중 전쟁이 없던 시기는 270년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러면, 전쟁은 근절하거나 막을 수 있는 대상인가? 전쟁의 원인이 무엇이고 누구를 위해 전쟁을 하는가? 라는 질문에 답을 찾고 처방을 하는 것은 인류의 평화와 생존을 위해 절실한 공동의 관심사이다.

전쟁의 원인은 인간의 본성과 국가의 본성에서 발생한다고 말한다. 전쟁이 원인이 여기에 있다면, 인류가 소멸하거나 국가가 소멸하였을 때 전쟁이 근절될 수 있다는 논리이다. 인간의 폭력적이고 이기적인 본성과 국가의 자국의 이익 추구의 속성은 결코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쟁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인류가 안고 가야 할 운명이다. 하지만 전쟁의 원인이 인간의 본성과 국가의 속성, 그리고 국제체제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치더라도 전쟁은 예방할 수 없는 존재인가? 아니면 근절하지 못하더라도 원인을 찾아서 처방하여 인간의 희생을 줄이는 방안은 없는 것인가? 아마도 전쟁을 연구하는 학자뿐만 아니라 전 인류의 관심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케네스 월츠의 3가지 이미지상으로 이-하 전쟁의 원인을 분석하여 해결 방향을 고찰한 다음 한국의 전략적 함의를 시사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케네스 월츠는 전쟁의 원인을 이미지라는 관념적 요소를 활용하여 3가지 이미지상을 제시하였다. 인간, 국가, 국제체제 차원의 전쟁 원인을 규명하고 어떻게 하면 전쟁을 막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서 출발하였다[2].

첫 번째 이미지상으로 인간이다. 인간이 전쟁을 수행하는 본질적인 주체로서 인간의 내면에 본질적으로 내재한 악(惡)한 본성과 행위를 분석의 대상으로 하고 인간의 이기심, 폭력성 등을 전쟁을 촉발하는 원인으로 보는 관점이다.

두 번째 이미지상은 국가이다. 국가의 정치 및 경제 구조, 군사력의 구조와 운용, 국가의 이념과 가치, 민족과 종교 등 국가 내부구조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해당 국가의 대외정책 등을 주요 분석 대상으로 한다. 특히, 전쟁은 상호 내부구조와 외부 대외정책의 기조가 다른 국가 간의 충돌로 이들 간의 갈등으로 파생되는 산물로서 바라본다.

세 번째는 국제체제 이미지상이다. 국제체제는 세계 정부가 존재하지 않는 아나키(Anarchy) 상태, 즉 무정부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국가와 국가 간 자국의 이익에 반하는 분쟁과 대립이 발생 시 이를 조정, 통제할 상위기구가 존재하지 않아 전쟁이 발발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세력균형으로 평화를 유지해 오다가 그 균형이 깨질 때 전쟁이 발발한다고 본다. 고대 그리스 지역에 신흥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아테네에 대해 스파르타가 공격하여 전쟁을 일으켰던 ‘투키디데스의 함정’이 이러한 사례이다.

표 1에서 보인 바와 같이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원인의 분석의 틀은 케네스 월츠가 제시한 전쟁 원인의 3가지 이미지상으로 분석하였다. 인간의 본성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발언, 성향, 행동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고, 국가 내부구조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역사, 종교, 민족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으며, 국제체제는 아랍지역 국제관계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표 1.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원인 분석의 틀
Table 1. Framework for analyzing the causes of the Israel-Hamas war

구분	분석수준	분석 대상
인간	인간의 본성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발언, 성향, 행동
국가	국가 내부구조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역사, 종교, 민족
국제 체제	세력균형	아랍지역 국제관계

케네스 월츠는 전쟁 원인의 3가지 이미지상으로 모든 국제관계와 전쟁의 원인을 이해하려면 인간, 국가, 국제체제는 모두 근본적인 중요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어느 하나에 집중하여 설명하려는 시도는 무의미, 무분별하다고 역설한다. 따라서 표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3가지 이미지상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원인을 살펴보고 한반도에 미치는 전

략적 함의를 살피고자 한다.

III.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원인 분석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은 양측의 전쟁지도부의 성향, 내부 국내 정치요소와 양측간의 유구한 피의 역사, 이들을 둘러싼 인접 중동국가들과의 관계 등 다양한 요소가 얽혀 복잡한 양상을 띠며 이를 하나의 단일 원인으로 규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인간, 국가, 국제체제의 3가지 이미지로 분석하여 복합적인 전쟁의 원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3.1 첫 번째 이미지 : 인간

첫 번째 분석수준인 인간의 본성과 행위 측면에서 이스라엘의 실권자 네타냐후 총리와 집권당을 분석하고, 하마스의 실권자 하니예와 지도계층의 행위와 사상이 분석 대상이다.

벤자민 네타냐후 총리는 1996년 집권 시작으로 현재까지 집권하고 있다. 네타냐후 정권의 내각 구성은 역사상 가장 극우적인 성향을 띄고 있다. 정부는 출범 이후 팔레스타인인과의 물리적 충돌에 대한 강경 대응과 차별적 조치 등 강력한 강경정책을 펼치고 있다. 또한, "테러엔 타협은 절대 없고 강경하게 대응만이 우선"이라고 말한 정도로 테러에 대한 강경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배경에는 네타냐후 총리의 형 요나단 네타냐후가 1976년 팔레스타인 테러조직에 납치된 이스라엘 구출작전 간 전사하였기 때문이다. 네타냐후는 10월 7일 하마스 집단이 침공 이후 10월 12일 "하마스 대원은 죽은 목숨이다. 자비 없는 피의 복수가 이뤄질 것"을 예고하고 전쟁을 선포하였다[3]. 전쟁 간에도 인질 협상 압박과 미국의 인도주의적 저항도 대응 주문에도 불구하고 하마스 집단을 뿌리째 뽑아 종식하겠다는 호전적인 성향과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하마스 지도부는 "이스라엘에 갇혀 있는 팔레스타인 수감자가 모두 풀려날 때까지 인질을 풀어주지 않겠다"라는 생각으로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 하마스 지도자 하니예는 호전적이고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이 2007년부터 가자지구에 봉쇄 조치를 하자 호시탐탐 이스라엘 상대로 테러를 자행하고 있다.

따라서 인간적 측면에서 전쟁의 원인은 상호 간에 뿌리 깊은 증오심과 적개심, 네타냐후 정권의 극 우파

성향, 하마스 지도부의 폭력성 등이 전쟁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3.2 두 번째 이미지 : 국가

국가 차원의 이미지상으로 전쟁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정치체제, 국가의 역사, 대외정책, 종교 등이 분석 대상이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역사를 살펴 보아야 할 것이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역사는 기원전부터 살펴봐야 한다. 유대인은 아브라함 때부터 유일신 하나님을 믿으며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에 이주하여 살다가 대기근을 만난 오랫동안 이집트에 노예 생활을 하다가 지도자 모세에 의해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다시 이주하여 왕국을 세운다.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로 사는 동안 가나안에는 원주민이 살고 있었다. 이후 가나안 지역은 페르시아, 그리스, 오스만투르크 등 강대국들이 지배하면서 분열과 전 세계로 흩어져 명맥을 유지한 상태였다. 그러던 중 시오니즘의 전개와 벨푸어 선언으로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이주하게 되었고, 이 지역에 살고 있던 팔레스타인인들과 갈등과 충돌이 이어진 것이다. 이스라엘 건국은 이스라엘에게는 영토회복의 의미가 있지만, 팔레스타인에게는 오랜 세월 정착한 고향의 상실을 의미한다.

하마스는 이슬람주의 운동조직인 '무슬림형제단'이 원형으로 1차 인티파다 이후 PLO의 온건적 태도에 실망하여 1987년에 창설되었다. 하마스는 급진세력이지만 2차 인티파다를 주도하여 국민의 지지를 받게 되고, 2006년 1월 팔레스타인 총선에서 집권 정당이 되었다. 하지만, 하마스의 급진 무장 노선은 강대국의 체제와 개입으로 파타당과 결별하고 가자지구에 독자적 세력을 구축하였다. 하마스 헌장에 명시된 것과 같이 하마스는 무장 투쟁을 통해 팔레스타인에서 이스라엘을 내쫓고 독립국을 세우겠다는 것이 목표이다[4].

이처럼 양측은 역사적으로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지 못하고, 정치체제, 종교, 문화 및 가치가 상호대립하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이-하 전쟁과 유사한 전쟁이 2003, 2006, 2009, 2021년에도 동일하게 발생하여 전쟁으로 인한 상처와 피해가 관계의 골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4]. 이러한 상호 존립할 수 없는 역사와 피의 역사로 얼룩진 관계는 언제든지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국가라는 이미지 차원의 전쟁의 촉발원인으로 작용하

고 있다.

3.3 세 번째 이미지 : 국제체제

하마스는 존재 자체가 소멸할 수도 있는 엄청난 위협을 감수하고서 전면적인 공세를 가한 이유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세 번째 이미지상인 국제체제와 함께 분석해 봐야 한다. 하마스의 아랍권에서의 위상, 하마스와 관계하고 있는 국가와 집단, 그리고 이스라엘이 관계하고 있는 국가와 관계 형성은 이번 전쟁이 허용원인으로 작용하기에 충분한 원인을 제공한다.

전쟁 발발 이전에 이스라엘과 사우디 간 국교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었다. 2020년에는 이스라엘이 UAE, 바레인과 '아브라함 협정'을 맺고 국교를 수립했다. 이후 아브라함 협정에 따라 모로코, 수단과도 국교를 수립했다. 아랍연맹 내의 다수 국가가 이스라엘과 우호적인 관계를 회복하고 있는 와중에 미국의 중재로 아랍연맹 수니파의 맹주국인 사우디와 이스라엘이 우호적인 관계를 회복하고 있었다. 이는 중동에서 지역패권을 노리는 이란뿐만 아니라 하마스에게도 존재감 상실과 국제적 지지와 지원이 사라질 수 있는 위협으로 작용한 것이다[5].

뉴욕타임스 보도로는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관계 정상화를 막기 위해 이란의 사주를 받은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고, WSJ은 이란 혁명수비대의 최정예부대인 알쿠드스키와 8월부터 10월 초까지 지상, 해상, 공중으로 이스라엘을 기습하는 작전을 계획하여 하마스와 이슬라믹 지하드 대원 500명이 이란에서 훈련하였다고 보도했다. 하마스 입장에서 이스라엘의 국제적 행보는 아랍권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 내에서도 자신들의 입지가 줄어들 수 있고 또한 분쟁을 발생시켜 팔레스타인이 받는 억압과 고통을 국제문제로 비하하여 관심을 끌 수 있는 환경이 사라지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국제체제가 하마스가 전쟁을 일으키는 허용원인으로 작용한다고 추론할 수 있다

IV. 한반도에 미치는 전략적 함의

이-하 전쟁은 양측간에 끊임없는 증오심의 인간적 이미지, 오랜 분쟁과 투쟁의 역사, 민족, 종교에서 발생하는 국가적 이미지, 세계질서와 중동에서 작용

하고 있는 세력균형과 관계 형성에 의한 국제체제적 이미지가 복합적이고 상호의존적으로 전쟁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전쟁의 원인은 동북아 지역의 불안정한 안보환경과 진영 다툼으로 치닫고 있는 국제질서 속에서 한반도 또한 안전한 지대가 아니다. 앞에서 언급한 하마스의 전쟁 발발 원인은 작금의 북한의 연속적인 도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하 전쟁에서 분석한 전쟁원인을 북한에 적용하여 한국에 주는 전략적 함의를 살피는 것은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은 인간적 측면에서 김정은이 3대 세습으로 이어진 세습정치와 공포정치를 이어가고 있다. 김정은의 독보적이고 무소불위의 권력은 한반도 적화통일이라는 전략적 목표와 결합하여 언제든지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도 북한은 정권 유지와 생존을 위해 주민을 억압하고 인권을 무시하며 핵과 미사일을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주민이 굶어 죽더라도 핵과 미사일을 위해 모든 국가자원을 투입하고 부족한 부분은 해킹과 가상화폐 등 불법적으로 자금을 충당하는 불량국가, 테러국가, 불만족국가이다. 국가 내부의 불안정으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정권 유지와 생존을 위해 오판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북한이라는 국가의 속성은 전쟁의 원인으로 작동하기에 충분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국제체제 차원에서도 동북아 지역은 러-우 전쟁으로 북·중·러와 한·미·일로 진영화 하는 신냉전 경향을 보인다.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와 정상회담을 하면서 전쟁 지원의 대가로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하기 위한 첨단군사기술을 이전받고자 한다[6, 7]. 한·미·일도 북핵과 미사일에 대응하여 정보공유와 연합훈련을 한반도에 전개하여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동북아에서 블록화와 군비증강은 전쟁의 허용원인으로 작동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국가이익은 궁극적으로 세계평화를 추구하고 있다. 힘에 의한 평화 추구하고 더불어 대화와 협력으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는 통로를 개척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공동의 이익 추구, 공동의 위협 감소, 공동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의제를 발굴하여 대

화의 물꼬를 트는 전방위적 노력이 필요할 때다.

V. 결론

원인 없는 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 전쟁의 원인을 케네스 월츠의 3가지 이미지상으로 이-하 전쟁의 원인 설명이 가능하고, 이를 북한에 적용할 시에는 한반도 또한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고찰하였다. 전쟁의 원인 분석 결과를 거울삼아 앞으로 전쟁이 발발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안전장치는 전쟁으로 인해 과거 아픔의 역사에 매여있기보다, 미래 상생하는 대국적인 자세로 나아가는 노력이 중요하다. 무정부적 국제체제에서 국제사회는 통제력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치부하지 말고, UN과 같은 국제기구의 통치력 강화와 비국가 행위자로 구성된 '거버넌스'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여 적극적인 평화를 만들어가는 전 지구적 노력이 절실하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이익을 같이하는 국가와 소다자 안보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우리는 한미동맹과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로 억제력을 제고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NATO 등 인도-태평양지역에서 협력을 하며 자유주의 질서와 시장경제의 규범과 가치를 실현한다면 전쟁을 억제할 수 있고, 억제 실패 시 국제적으로 지지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전쟁의 바이러스는 면역성이 가장 약한 곳을 찾아 전쟁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되새겨 들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1] Namuwiki, "2023 Israel-Hamas War," <https://namu.wiki/w/2023%EB%85%84%20%EC%9D%B4%EC%8A%A4%EB%9D%BC%EC%97%98-%ED%95%98%EB%A7%88%EC%8A%A4%20%EC%A0%84%EC%9F%81>(Search date: 2024. 1.6.)
- [2] Waltz, Kenneth N, "Man, the State, and War," Columbia University Press(2001).
- [3] Kookmin Ilbo, "Israeli PM prepares for ground war: " Hamas, everyone is dead" ,"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8757889>(Search date: 2024.1.5.).
- [4] D. H. Kim, H. G. Heong, Y. G. Kim. M. H. Park and S. E. Shim, "Israel-Hamas War: Background,

Prospects and Challenges," NARS Current Issues and Analysis(National Assembly Legislative Research Service), No. 3005, pp. 1-5, 2023.

- [5] S. J. Cho, S. S. Choi, S. S. Woo, K. W. Kim, S. h. Lee, and S. H. Park, "A Case Study of Cognitive Warfare in the Israel-Palestinian Conflict in 2021,"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8, No. 6, pp. 537-542, November 30, 2022, <http://dx.doi.org/10.17703/JCCT.2022.8.6.537>
- [6] J. H. Jang, and I. K. Seong, "Israel-Hamas War: Analysis and Prospects," *Asa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2023-25, p. 3, 2023.
- [7] K. I. Seo, J. H. Kim, M. H. Won, D. M. Lee, J. H. Bae and S. H. Park, "Case Study on the Trends of North Korean Strategic UAV 'Satbyol',"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IJACT)*, Vol.11 No.4, pp. 317-321,2023, <https://doi.org/10.17703/IJACT.2023.11.4.317>

※ 이 연구는 2024년도 서경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졌음